

4학년 제33회 전국 독서올림피아드 시험지(1교시)

이름 :

학교명 :

감독 확인

응시번호 : - -

※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골라 OMR 카드에 표시 (●) 하세요.

[1~8] 《시간을 묻는 소년, 모나리자》와 관련된 문제입니다.

1. 등장인물에 대한 내용이 바르지 않은 것은?

- ① 다빈이는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빠랑 고모 집으로 이사했고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.
- ② 도훈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며 공원에서 자유롭게 노는 것과 개미를 좋아하고 엄마와 함께 안녕 슈퍼 2층에 산다.
- ③ 캐나다 할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혼자 살고 계시고 한쪽 다리가 불편하지만 안녕 공원에 나와 아이들을 지켜본다.
- ④ 고모는 요양 보호사인데 다빈이와 함께 살기 전까지 두 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기도 하고, 더 좋은 취직 자리를 포기하며 다빈이를 돌보았다.
- ⑤ 초콜릿 언니는 아르바이트하던 동네 빵집이 없어지고 취업이 안 돼 자신감을 잃어버렸지만 도훈이와 캐나다 할머니 덕분에 힘을 얻어 자기 카페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.

2. ‘나(다빈이)’와 도훈이에게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?

- ① 처음 안녕 공원에 간 날 나에게 지금 몇 시냐고 물었던 도훈이는 내가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찾는 사이에 사라져 버렸다.
- ② 나와 도훈이는 비눗방울을 부는 꼬마를 만나 함께 신나게 놀았지만 꼬마 엄마에게 꼬마를 위협하게 했다는 오해를 받았다.
- ③ 종이로 개미를 진짜처럼 잘 접는 도훈이에게 나는 개미 접기를 배우고 대신 하트와 장미꽃 접기를 가르쳐 주며 하루를 보냈다.
- ④ 꼬마를 물에 빠뜨렸다고 오해한 꼬마 엄마가 도훈이에게 소리를 지르자 도훈이는 피가 나도록 눈썹을 뜯으며 흥분했고 나는 그런 도훈이를 꼭 끌어안아 진정시켰다.
- ⑤ 하늘에 가서 딱 한 번이라도 엄마를 보고 싶다는 내 말을 들은 도훈이는 3단 분수 앞 계곡으로 날 데리고 갔고, 하늘이 비치는 계곡물에서 같이 물장구를 치며 놀았다.

3. ㉠~㉣에 담긴 세 사람의 공통된 마음으로 적절한 것은?

- ㉠엄마 품에 안긴 나를 그렸다. 그동안 계속 그리고 싶었는데 그리지 못했던 그림이다.
- ㉡“미밍, 너니?”
할머니는 갑자기 나타나 어슬렁거리는 고양이에게 말을 걸었다.
- 내가 색연필을 끌어안은 것처럼 ㉢도훈이도 책을 가슴 앞에 끌어안고 있었다. 표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. 망태 할아버지 그림책이었다. 아줌마는 도훈이랑 여행 하면서 평소 엄두도 내지 못했던 서점에 들렀는데 도훈이가 책을 집더니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했다.

- ① 함께 보낸 시간과 추억에 대한 만족감
- ② 자기를 보호해 줄 대상을 잃은 속상함
- ③ 다시 만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
- ④ 자기 곁에 없는 대상에 대한 걱정스러움
- ⑤ 함께 지낼 때 더 잘해 주지 못한 미안함

4. ‘안녕 공원’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내용만 고른 것은?

- ㉠ 가족끼리, 친구끼리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간
- ㉡ 해가 지기 전까지 멋진 환상 세계가 펼쳐지는 공간
- ㉢ 낯선 이웃들이 만나 서로를 알아 가며 친구가 되는 공간
- ㉣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공간
- ㉤ 사회적 약자들이 편히 놀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공간

- ① ㉠, ㉡, ㉣
- ② ㉠, ㉢, ㉤
- ③ ㉠, ㉢, ㉤
- ④ ㉡, ㉢, ㉤
- ⑤ ㉡, ㉣, ㉤